



# 교섭속보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 [3차 산별현장교섭 보고]

▲임금 인상 6% ▲비정규직 임금동일화 ▲상여금 30% 인상

# 지불능력 한도내에서 검토



왼쪽부터) 구로 이성재 대의원, 안산 박근동 대의원  
3차 산별현장교섭에는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가 진행됐다. 오후 3시 의과대학 411호에서 진행된 교섭에는 노사 대표위원 및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노측 간사를 안산병원 박근동 대의원이 맡았으며, 구로병원 이성재 대의원,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간부들이 참관인으로 자리했다. 노사 대표위원 인사는 생략했다.

요구안 심의 전 노측 위원들은 지난 번 교섭에서 사측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교섭과 관련 없는 자료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인해 다소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 노사, 현장문제 공유하며 해결의 실마리 찾으려 노력.

한편 본교섭을 시작하기 전 노재옥 지부장은 ‘지난 번 논의했던 현장문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현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① **토요 당직 근무** :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료원 지침에 대해 보류하겠다.

② **셋-다운 시스템** : 지난교섭에서 IT를 요청했으나 날짜를 잡아서 대책을 논의하자.

③ **조합원 부당배치전환에 대한 건** : 여기서 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노사협의회에서 얘기하자.

곧이어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가 진행됐다. 노측 위원들은 요구안에 따른 근거를 사측에 설명했으며 사측 위원들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 ▲ 임금인상 6%

2019년도 들어가는 비용이 780억이다.

의료원은 지불능력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적절히 배분하고 노조가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측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780억이 소요될 것을 피력하며(청담동개발 76억, 안암동 의학센터 554억, 구로 마스터플랜 21억, PHIS(정밀의료개발사업) 84억, 퇴직수당 충당금 43억) 노조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측위원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약 4500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 ‘고대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 의료수익을 비교했을 때, 1조 500억으로 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니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다.’고 말하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형 대표위원은 “많이 성장한 것에 대해 감사하나 고대의료원의 위상과 위치를 보자면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7400여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진료실적을 올리면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경영진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이 있어 고민이 생긴다.”고 답변했다.

노측에서는 ‘일류를 지향하는 병원으로써 직원들도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려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임금인상 요구를 강조했다.

### ▲ 비정규직 임금 동일화

교섭대상 아니나 의료원에 맡겨주시면 적절하게 급여 인상 하겠다.

사측은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하고 있고 임금인상 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적용하고 있다.’ 고 말하며 정규직 시용직을 포함하며 약 90%의 급여 수준을 맞춰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측위원들은 ‘타 병원은 이미 2020년까지 100%로 합의한 곳들이 많다.’,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일하면서 두 직종 모두에게 고충이 발생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는 고용불안과 임금 차별로 인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

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 ▲ 상여금 인상(1050%→1080%)

다른 병원 상여 및 정근수당에 비해 우리 병원이 낮은 수준 아니다.

사측은 ‘CMC 1300%, 이대 1135%, 경희대 1130%, 연세대1100%’ 등을 언급했고, 작년 법위반 사항으로 인해 12개월 분할에 합의해 준 것은 고마우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글로벌리더를 주창하는 일류 고대의료원에 걸 맞는 직원수준 만들어 줘야 할 것!

의료원 말이 맞다. KU MEDICINE으로 발돋움하며, 미래의학을 선도하기 위해 더 위

로 올라가야 하고 그에 맞춰 감수해야 할 부분을 직원들도 당연히 알고 있다. 그래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의료원이 부채를 해소하고 흑자로 전환했을 때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적립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고생했다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보상과 배풀이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는 근무환경, 복지제도, 인력문제에 지쳐가고 있다. 더 이상 직원들을 실망시키지 말라. 7400의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이제는 나누고 돌려줘야 할 때다.

## 노동존중 사람존중 고대의료원 만들기 - 수당 인상 및 신설(3)

### 4. 콜 당직 대기 수당 신설 (대기 일 당 20,000원 지급)

■ 콜 당직을 하는 나는 밥 먹듯이 ‘새벽퇴근 정시출근’, ‘전화를 받아야 하는 압박감’ + ‘52시간 법 위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콜 당직 부서에서 근무하는 나는 정시 출퇴근을 하고도 전화가 오면 그게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출근해야 합니다. 새벽에 돌아가도 정시출근을 해야 합니다. 조사해 보니, 나는 한 달에 8일 이상의 콜을 받았습시다. 평일당직이었던 A는 콜을 두 세 차례 받아 주 52시간이 넘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근무 후의 ‘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 부름을 당할지 몰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B는 ‘대중목욕탕에 가는데도 전화기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적인 약속은 물론 외식이나 영화는커녕 아예 병원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콜이 오지 않을 때는 결국 대기에 따른 보상도 없이 나의 하루를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생활이 너무 싫습시다. 근무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의료원은 우리 직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타 병원 수당 지급 현황

병원	구분	내용
강동성심	대기수당	심혈관 조영실 : 공휴일 3만원, 설연휴, 추석연휴, 노동절 2만원 / 흉부외과, 일반외과 : 평일, 공휴일 모두 3만원 기타 온콜받는 부서 : 설연휴, 추석연휴, 노동절 2만원 / 교통비 10,000원 이상 실비지급
경희대	대기수당	일당 1만원 지급 / 시간외 별도(내시경실, 심혈관조영실, 인공신장실, 수술실, 마취회복실)
국립의료원	온콜수당	콜비 건당 8만원 지급(시간외 별도)
상계백	대기수당	1일 5천원, 교통비 2만원
서울성모	온콜수당	콜받고 나온 경우에만 일한시간 연장+3시간 추가 수당 지급 / 모든 부서 해당. 병원에서 카카오택시 지원
여의도성모	온콜수당	근무시간 +1시간 인정, 150% 지급
원자력	온콜수당	수술실 대기 수당 월 30만원(교통비 포함)-이브닝 퇴근후 야간 콜의 경우 내시경, 인공신장실 건당 4만원, 시간외 별도
이대	온콜수당	2시간 시간외 수당 인정 (내시경실, 인공신장실, 혈관조영실)
중대	온콜수당	건당 5만원

KUMC MEDICINE으로 KUMC W-L-B(일과 생활의 균형)을 만들어보자!

환자들의 생명만 살리는 병원이 아닌 직원들의 건강과 생명도 지키고 병원의 품격도 올릴 수 있는 고대의료원이 되어보자!